

5·18 유족회장인 정수만씨(54)의 말이다. 정수만씨는 금남로에서 도청, 그리고 5·18묘지에서부터 쪽 안내를 도맡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평화방송, 전일빌딩, YMCA, 상무관 등 금남로 주변의 건물들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란다. 시위대가 운집했던 분수대도 물줄기의 모양만 달라졌고, 도청 역시 담이 헐리고 알림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20일 저녁 계엄군은 최초의 발포를 하였고, 시위대는 돌맹이를 쥔 채로 픽픽 쓰러졌다. 이날 밤 계엄군의 탱크는 굉음을 내며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했



아! 광주, 꺼지지 않을 민주의 불꽃

1980년 5월 '전남 도청과 금남로', 그리고 2002년 '국립 5·18묘지'

원시림

고, 그 바퀴에 깔려 죽은 아이들도 있었다. MBC와 세무서, 노동청, 그리고 KBS가 시민들에 의해 불탔다. 사실보도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세금으로 제 국민을 죽인다는 분노에서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단결된 시민정신을 보여 주었다. 광주 항쟁동안 시민들은 맘만 먹으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만, 금융기관이나 상점 한 곳 털린 데가 없었다. 오히려 다음 날 금남로 일대는 김밥이나 주먹밥을 함지에 담아 온 아주머니들로 가득했다. 시민군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은 자신의 남편, 아들, 동생을 먹이는 일과 같은 거였다.



21일, 무장한 시민군은 마침내 도청을 점령할 수 있었다. 계엄군은 총퇴각을 하면서도 M60 기관총을 난사해 거리의 시민들이 수없이 살상당했다. 심지어는 도로 옆의 주택가까지 탄환이 날아들어 방 안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금남로는 일시에 '이겼다! 는 함성과 '아리랑' 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미 병원마다 사상자로 넘쳐났으며, 저들의 퇴각은 단지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었다.

당시 YMCA측의 주선으로 슈미트 신부(69 ·

아무도 모르더군요.”

도청, 마지막 항쟁의 불꽃

5월 22일부터 5일간 광주 시민은 계엄군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했다. 그러나 이 해방은 광주 외곽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었다. 광주 시민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 를 개최했고, 윤상원을 중심으로 민중언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투사회보』(뒤에 『민주시민회보』로 개칭)를 10호가



Wolfgang Schmidt, 독일인)는 광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한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계엄군과 시민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YMCA에서 묵는 동안 총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군데 병원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섯 명 가량이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눈 주위가 완전히 뭉개져 있기도 했습니다. 22일 광주를 떠나기까지 외국인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

지 발행하기도 했다. 관이 부족해 상무관 주위에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시민들의 분향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수혈 환자로 부족했던 피가 소문을 듣고 찾아 온 시민들 때문에 나중엔 남아돌 정도였다. 시민들은 연일 도청앞 광장에 모여 '광주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 '구속 시민 석방', 그리고 '계엄 해제와 전두환의 처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습위원회는 서서히 '임전과 투항' 의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민의 피를 볼 수 없으므로 무기를 반납하자' 는 주장과 '투항은 먼저 죽은 시민들의 피를 팔아먹는 것' 이라는 주장이

맞았다. 계엄군의 정보요원들은 광주 시내에 잠입해 지도부를 이간질했다. 22일 존 위컴 주한 유엔군 및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군중진압에 동의함으로써 광주사태의 배후에 그들이 있음을 증명했다.

윤상원(당시 29세), 박남선(26), 김종배(25), 정상용(30) 등 항쟁 지도부가 이끄는 마지막 시민군(200~500여 명이었다 하는데, 주장에 따라 숫자에 이견이 큼)은 27일 새벽에 도청의 곳곳에 배치되어 계엄군을 맞았다. 그러나 무기고에 있던 다이너마이트는 계엄군 공작요원에 의해 이미 뇌관이 제거돼 무용지물이었다고, 다른 무기와 병력에 있어서도 턱없는 방어선이었다. 시민군들은 서로 “저승에서 만나자”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도청은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찌가 윤상원이 죽은 데지라.” 정수만씨는 도청 원편의 2층 난간을 가리킨다. 날은 저물어 어둡고 가랑비가 가로등 불빛을 가로지르며 떨어져 노트를 축축하게 적시는 가운데, 그의 말을 꼭꼭 눌러 받아 적는다. “곤봉으로 때리면 누구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팔이 부러졌지라. 발로 무르팍을 걷어차 쓰러지면 엄살을 부린다고 대검으로 찌릅니다. 신경진씨(현재 46세)가 간신히 피해서 허벅지에 상처가 남았는데도 그놈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을 하는 거 이죠. 대검에 유방을 찔려 죽은 처녀 손웅례(19),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끝내 숨진 아버지 손용직씨, 그 밖에도 환각·환청이나 정신분열을 보이는 정신이상자들, 성폭행을 당했다가 결국엔 자살한 여학생……” 정수만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현황(2001년 11월 보상심의 결과)에 따르면,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희생된 시민은 사망 154명, 행방불명 70명, 상의 및 기타 4,088명으로 총 4,312명을 헤아린다.(문의 : 광주광역시청 5·18 정신선양과) 그러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 희생자나 무연고자 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5·18 민주광장을 가로질러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다. 도청 오른쪽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TK-1공구 건설공사’라 쓰여진 천막에 반쯤 가려진 크레인이 보인다. 그 지하철은 도청 뒤편의 전남대 대학병원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는데, 도청 건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지하 깊숙이 공사가 진행중이란다.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 역시 ‘무인’으로 옮기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데, 현재의 도청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 때문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발길은 자연스레 ‘5·18 민중항쟁 알림탑’ 앞으로 다가선다. 팔목 묶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뒤로 두 손을 번쩍 든 청년상이 보이고, 그 앞에 알림탑이 있다. “여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군부독재의 총칼과 맞선 광주·전남 애국 시도민들이 자유와 헌정 수호의 결의로 굳게 뭉쳐 민주주의 대성회를 열고 도청 탈환의 처절한 피의 항쟁을 전개한 곳이다. 더러는 찢리고 더러는 죽고 무자비한 신군부의 탱크와 총칼에 희생된 자, 수많은 사상자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는 시산시해의 격전장을 이루었다. 이듬하여 도청앞 광장. 그날의 절규가 메아리치는 민주쟁취의 투쟁현장으로서 마침내 역사를 넘어 죽음을 넘어 새로이 부활하는 한국민주주의의 제1번지 「5·18 민주광장」으로 명명되었다.(후략)”

그 역사의 현장은 지금도 광주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광장이라 한다. 특히 올 6월에는 분수대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응원을 했다고 하니, 격세지감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국립 5·18 묘지와 망월동 구묘역

버스 3대가 5·18 묘지 앞에 서자 백발의 노인들 67명이 줄지어 내린다. 그리고 곧 구부정한 허리를 애써 펴고 새로 단장한 5·18 묘지를 둘러보며 ‘하!’, 감탄사를 내뿜는다. 그간 음으로 양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도왔던 동지들이다. 1974년 인혁당 사건의 조작을 최초로 폭로했다가 추방당했던 오글 목사(73·George Ogle, 미국인) 부부와 시노트 신부(73·Jim Sinnott, 미국인)를 비롯해 70년대 유신반대투쟁과 80년대 광주항쟁 등 인권탄압에 대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걸음마를 떤 시절부터 지켜왔으니, 이만한 국립묘지를 세운 것이 마냥 새로울 뿐이다. 저기 묻힌 시민들이 폭도로 몰려 잔인하게 탄압 받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던가. 이들의 마음

광장'을 걸어 들어가면 '추념문'이 나오고, 이를 통과하면 '5·18 민주항쟁 추모탑'이 마주 보이는 '참배광장'이다. 박형규 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를 필두로 분양하고 선열들에게 모두 머리 숙여 참배한다.

'5·18 민주항쟁 추모탑'(높이 40m)은 두 개의 사각기둥이 당간지주 모양으로 세워졌는데, 가운데 부분에 손을 오므려 스테인레스 재질의 난형(卵形)을 감싸쥐고 있는 형상이 이채롭다. 난형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태양광에 반사되



을 아는지 반기는지 촉촉한 빗줄기가 흩뿌린다.

1994년 시작해 3년만에 완공된 5·18 묘지 성역화 사업은 당시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저 뒷산 산기슭(5·18 구묘지, 시립묘지 3묘역)에 묻혀 저 세상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던 영령들을 새로이 안장한 것. 그간 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다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지금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34번지, 50,280평의 땅에 349분(2002.10.18 현재)의 민주영령을 모시고 있다. '민주의 문'을 거쳐 반원 모양의 '민주

는 빛은 면혼(免魂)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님의 혼백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희망의 씨앗이라 한다. 탑 좌우로는 다섯 개씩 열 개의 '5월 민주항쟁도' 부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 끝에는 김준태 시인의 '아아 光州여!'란 시가, 우측 끝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의미를 새긴 송기숙 소설가의 탑명이 서 있다.

민주인사들의 발걸음을 좇아 묘역으로 올라가니 하비 목사(67·Pharis Harvey, 미국인·국제노동인권기금 사무총장)가 오른쪽 중간쯤의 어느 묘소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살펴보니 윤상원의

묘소다. 모두들 흠어져 먼저 떠난 민주 영령들을 추모한다. 정수만 유족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산화(散華)한 순서대로 아래 단에서부터 올라가며 지그재그로 모셔졌다고 한다. 제일 먼저 문헌 분은 김경철 씨인데, 이 분은 놓아졌던지라 죽음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시위도중 잡혀 트럭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순번을 큰 소리로 복창하도록 시켰는데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맞아죽었다는 것. 그밖에도 억울한 죽음은 수없이 많다.

“저는 89년에 처음 와 봤는데, 그때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탑을 세우고 잘 관리된 것을 보니 민주주의 운동이 승리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군요” 오글 목사 부인(Dorothy Ogle)의 말이다. 사람들은 흠어져 좌측의 ‘역사의 문’을 지나 ‘민주동산’ 쪽으로도 가고, 영정이 모셔진 오른쪽의 ‘유영봉안소’로도 간다. 마침 유영봉안소를 둘러보고 나오는 안도 이사무 신부(Ando Isamu, 스페인계 일본인)를 만나 소감을 듣는다. “저는 ‘5·18 직후에 광주에 상황조사를 나왔었는데, 거리에 온통 불탄 차들로 즐비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베트남전때도 지원활동을 했습니다만,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두 젊은 사람들 영정으로 가득한 걸 보니 너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구묘역이라 일컬어지는 ‘광주광역시 시립공원묘지 3묘역’은 5·18 국립묘지에서 보면 11시 방향에 있다(도보로 약 10분 거리). 이곳에는 광주항쟁 이외의 다른 사건들로 문헌 36분의 민주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이재호, 이한열, 이철규, 김남주, 강경대, 박승희, 한상용, 그리고 29분의 또다른 열사들……

도착하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새카만 돌판 위에서 발을 구르는 모습이 눈에 띄어 살펴보니 전두환의 민박기념비란다. 옆에 안내판이 있어 읽어보니 82년 전두환이 차마 광주는 방문을 못하고 담양군에 잠입해 묵었던 걸 기념해 세운 비석을 89년 찾아내 부수고 그 일부를 문었으니 이곳을 짓밟고 지나가

라는 것. 십 년의 영화도 못 누리고 이렇듯 망신을 당하는 걸 보면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사필귀정(事必歸正)’은 고금을 떠나 세상의 변함없는 이치인 듯하다.

‘민족시인 故 김남주(1946-1994)의 묘’는 왼쪽편 끝자락에 있고, 거기서 두 칸을 올라가면 박승희 열사(1971-1991)와 강경대 열사(1971-1991)의 묘소가 나란히 붙었다. 그리고 구묘역 가운데쯤에 이한열 열사(1966-1987)의 묘소가 보인다. 묘소마다 유리함이 놓였고 그 안에 종이학이며 노트, 사진 등이 들어있는 건 지난번에 다녀온 모란공원과 다를 것이 없다. 대부분의 열사들은 왼쪽 편으로 웅기종기 모여서 안장되었는데, 5·18 국립묘지를 보고 온 때문인지 오히려 아담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곳 열사들도 곧 수유리 국립묘지로 이장될 터. 뒤에 강민조씨(60·강경대 열사의 아버지)를 만나 들으니, “지금껏 부모들은 자식을 가슴 속에 묻었지만 이제는 역사 속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기념관도 묘지 입구 쪽에 지어서 들어가면서 곧바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설명이다. 모쪼록 80년대의 향거나 90년대의 향거 모두 살아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가꿔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5·18 국립묘지를 나오자 곧 빗줄기도 굵어진다. 하늘마저 슬퍼하는 탓일까. 어쩌면 민주주의란 이렇게도 참혹한 대가를 받고서야 쥐어지는 것인지……! 새삼 ‘역사’의 무거움을 실감하는 여정이다.

※광주민중항쟁의 상황에 대한 부분은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황석영/전남사회운동협의회 등 공저, 풀빛’)을 참조했습니다.

※다음 호에는 해외민주화인사들과 함께 했던 ‘부산 민주공원과 부마항쟁’에 대한 답사기가 연재됩니다.

원시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작으로 「기동」, 「용꿈」, 「믹스엔매치」 등이 있음.